

소복 입은 어매의 외침 “5·18 희생 헛되이 되게 마소서”

남편·아들·가족 묘역 찾은 5·18 희생자 유족들 “12·3계엄, 소중한 민주주의 흔들릴 위기” 한탄 문재학 열사 어머니 “희생자 피로 이론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이룬 이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소서”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흰 소복을 입은 5·18 어매들은 이날도 45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분연히 싸우다 산화한 아들, 남편, 가족을 찾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5·18 고교생 시민군’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45주기를 맞는 5·18이 유독 사무진다.

전두환의 정권찬탈 과정에 맞서다 산화한 아들을 향한 관심과 조명이 최근 그 어느때보다 컸었던 만큼, 빈자리의 그늘도 유독 짙다.

문 여사는 1980년 광주상업고등학교 1학년 재학 도중 5·18을 마주했다.

문 여사는 광주시내를 지나다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동창이었던 양창근 열사가 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시민군에 합류했다.

문 여사는 5월22일부터 옛 전남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거나 유족을 안내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5월25일 어머니 김길자 여사의 절절한 귀가 호소에도 초등학교 동창이 죽었다. 계속 남아있겠다고 밝혔다.

문 여사는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 최후항전이 벌어질 5월27일 새벽 같은 학

교 동급생 고 안종필 열사와 함께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졌다.

문 여사의 일대기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온다’ 속 주인공으로 되살아나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오는 18일 5·18 정부기념식에서도 문 여사의 사연이 조명될 예정이다.

흰 소복을 차려 입고 아들의 묘소를 찾은 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어렵사리 아들의 묘비를 이루만지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서글픈 눈으로 묘비 아래 영정을 한참 쳐다봤다.

김 여사는 “5·18 최후 항전에서 숨진 희생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도청으로 간다던 아들을 막지 못한 죄책감이 이제는 자랑스러움으로 거듭났다”며 “아들이 품었던 뜻은 45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희생자들의 뜻과 같다. 아들이 ‘열사 문재학’으로서 널리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도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해 남편 고 명노 근씨의 묘지 앞에 섰다.

매년 오는 묘역이지만 45주기를 앞둔 이날 설움은 그 어느때보다 북받친다.

금방이라도 남편의 묘비를 안고 통곡하고 싶지만 세월이 주저앉힌 몸이 이따따



‘고교생 5·18시민군’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가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문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뉴스1

라 더욱 아속하다. 그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흔들릴 위기에 놓일 뻔한 것을 두고 한탄했다.

이러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의 하얀 소복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흘렀다.

안 전 관장은 “이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의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요”라며 울먹였다. 이어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고 해메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게 하지 마소서”라며 울부짖었다.

5·18 당시 부상을 당했다가 훗날 숨진 고 강현웅씨의 부인 윤화숙(64)씨도 어린 손녀와 함께 남편의 묘지 앞에 다

시었다. 어린 손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 묘역에 있는 풀을 다듬었다. 할머니인 윤씨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5·18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픈 듯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씨는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검문하는 계엄군에 의해 붙잡혀 구타당한 뒤 구급됐다.

그는 청춘의 모습을 간직한 그리운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윤씨의 근심은 아내의 손에 남은 45년 세월의 깊은 주름 만큼이나 깊었다.

그러면서 “당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는데도 아직도 계엄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승원 기자



순천시청 유도팀, 관내 유도 학교운동부 대상 재능기부 성료 팔마트레이닝센터서 신홍초, 신홍중, 공업고, 미래과학고 대상

순천시청 유도팀(감독 김양호)은 지난 15일 팔마트레이닝센터 유도장에서 관내 유도 학교운동부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능기부는 신홍초, 신홍중, 공업고, 미래과학고의 유도 학교운동부 3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순천시청 유도팀은 기초 몸풀기 후 수년간의 대회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 학생들에게 자세 교정과 기술 훈련 등을 일대일로 개별 지도했다.

지도를 받은 신홍중 학생은 “실전경험

이 많은 선배들에게 직접 배우고, 함께 겨뤄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양호 감독은 “이번 재능기부가 유도 유망주들에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천시청 유도 선수의 육성을 위해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능기부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함평군 신광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남 함평군 신광면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함평군은 16일 “신광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임의석)가 지난 14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단열 시공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광면 복지기동대는 민·관 협력으로 조직된 봉사대로 주거환경 개선, 생활 불편 해소, 청소 봉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봉사는 홀로 거주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마련됐

으며, 복지기동대 대원들은 직접 도배와 단열 시공 작업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임의석 복지기동대장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이웃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희숙 신광면장은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복지기동대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면에서도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영암군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 영암봉사단 나눔데이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지사협, 복지기동대 동행으로 뜻깊어

영암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하혜성)가 15일 덕진면 응두레도농교류센터에서 ‘재능기부 영암봉사단 나눔데이’를 열고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복지·민원 상담 △이미용·메이크업 △인생사진 촬영 △갈라지 △혈압·혈당 체크 △이불 세탁 △음식 나눔 등 서비스가 제공됐다.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는 위기가구 발굴 현장 상담·홍보를 병행했고, 영암군 희망복지팀도 긴급복지 지원,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 상담을 진행

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복버스, 이동세탁차,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복지자원이 함께해 나눔데이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초당대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푸드트럭은 가정의 달에 맞춘 어른식 사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하혜성 영암군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단체, 지사협, 복지기동대가 함께 한 행사여서 더 뜻깊었다. 나눔데이가 민관협력 현장 복지 실천의 장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